

<2015년 10월 21일 수요일말씀>

의(義)의 값, 의(義)의 힘

본 문 마태복음 20장 1-14절 (* 대표 한 사람 세워서 잘 봉독할 것)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

〈조금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뀌고,
조금 더 하면 문제가 답이 되고,
조금 더 하면 딴 세상이 된다.〉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.

이 말씀은 많이 행하게 하는 답이며,
많이 얻고 많이 누리게 하는 답이며,
차원을 높이게 하는 답이며,
더 잘하게 하는 답이며,
더 크고 웅장하게 하는 답이며,
휴거의 차원을 높이고, 휴거를 완성하게 하는 답입니다.

◎ 조금 더 행하면, ‘아주 조금의 차이’ 로
〈사탄의 주관권, 못하는 주관권〉을 벗어나,
〈하나님의 주관권, 잘하는 주관권〉으로 넘어오고

<다음 차원의 휴거 선>으로 올라가게 됩니다.

<조금 더 행하는 것>이 ‘답’입니다.

고로 10월에는 특히 ‘행함, 실천’에 대해서
다양한 각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

◎ 오늘도 주일말씀에 이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말씀의 주제는 ‘의(義)의 값, 의(義)의 힘’입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사람의 핵심은 ‘생각’입니다.

실천의 핵심도 ‘생각’입니다.

<생각>에서 ‘옳고 그른 것’을 분별하여 행하게 하기 때문이고,
<생각>에서 ‘하고자 하는 생각’이 있어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

◆ 말씀을 들어도 ‘얼마나 하고자 하느냐.’에 따라서
행하느냐, 행하지 않느냐가 좌우됩니다.

◆ <말씀>이 아무리 위대하고 생명력이 있어도
반드시 행해 봐야! 말씀대로 얻게 되고,
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,
말씀의 위대함과 위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.

◆ 사람은 <생각>을 ‘행’으로 하고 살아갑니다.

<생각>을 ‘핵’ 으로 하여

자기에게 <힘>이 저장된 대로

그 힘이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약하게 나가기도 합니다.

- ◆ 결국 <육신>이 행해야 됩니다. 그래야 남고, 얻고, 누립니다.

<육신>이 행하되, ‘자기 영’ 을 위해 행해야 됩니다.

<육신>이 ‘자기 육’ 만을 위해 행하면,

아무리 지구만큼 크게 행했어도

<육이 행한 것>이 ‘자기 영’ 에게는 가지 않습니다.

고로 구원도 휴거도 이루지 못하고,

육신이 죽으면 육에게 실오라기만큼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.

그러나 <육신>이 ‘자기 영’ 을 위해 행하면,

<육이 행한 것>이 ‘자기 영’ 에게 가서 ‘영’ 을 변화시킵니다.

그리함으로 ‘그 영’ 이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

영원히 가지고 살게 됩니다.

- ◆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고, 가진 것으로 누리며 살아도
그것이 결국 사라진다면,
꿈속에서 한순간 누렸던 것에 불과합니다.

<꿈>에서 ‘좋은 집’ 을 가지면 뭐합니까? 꿈을 깨면 사라집니다.

<생시>에 ‘좋은 집’ 을 가지고 있어야 평생 누립니다.

- ◆ <육이 가지고 있는 것>은 ‘꿈결’ 같고,
<영이 가지고 있는 것>은 ‘실체’ 와 같습니다.

- ◆ 어떻게 해야 ‘영’ 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?
<육>이 ‘자기 영’ 을 위해 행해 줘야 됩니다.

- ◆ 결국 <육>이 ‘자기 육’ 을 위해서도 살면서
‘자기 영’ 을 위해 행해야 됩니다.

- ◆ 그런데... <육>이 행하려면, ‘힘’ 이 있어야 됩니다.

사람은 <생각>을 ‘핵’ 으로 하여
자기에게 <힘>이 저장된 대로
그 힘이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약하게 나가기도 합니다.

고로 <생각의 힘>을 핵으로 하여
<육>에게도 ‘힘’ 이 있어야 강하게 행하고 많이 행하게 됩니다.

- ◆ <육신>은 **크게 세 가지**에서 힘이 나옵니다.
첫째, **몸의 힘** / 둘째, **정력** / 셋째, **의의 힘**입니다.

- ◆ 첫째, **<몸의 힘>**은 똑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.

연단하여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었다면 힘이 더 강하고,
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힘이 더 약하기도 합니다.

- ◆ 둘째, **<정력>**은 ‘몸의 힘을 기본’ 으로
어떤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분을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오고,
신경과 근육의 힘까지 종합해서 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셋째, <의의 힘>은 ‘의’를 행해야 옵니다.

<의를 행하는 것>은 마치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.

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지요?

<의의 힘>도 가만히 있으면 나지 않습니다.

의를 행해야 자기에게 <의의 힘>이 옵니다.

- ◆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

‘새롭고 좋은 구상’으로 하여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지요?

이와 같이 똑같이 의를 행해도

‘무엇’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<의의 값>이 큰 것이 있습니다.

- ◆ 그렇다면 ‘무엇’을 행해야 <의의 값>이 클까요?

곧! ‘그 시대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’을 행해야
<의의 값>이 최고로 큼니다.

지금 이 시대에는

‘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신부의 삶’을 살면서

‘하나님의 핵심 창조 목적’대로 행함으로

‘휴거’를 이루어 ‘매일 휴거의 삶’을 살아야

<의의 값>이 최고로 큼니다.

그로 인해 <의의 힘>도 최고로 커집니다.

- ◆ 돈이 많으면, 그 돈으로 ‘원하는 것’을 살 수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<의>가 많으면,

하나님께서 ‘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’을 해 주십니다.

하나님은 <각 사람이 쌓은 의>를 가지고,
최대한 해 줄 것을 해 주십니다.

- ◆ 이 시대에서 <의의 값>을 최고로 쳐 주는 것이 있으니,
곧 ‘휴거’ 되어 ‘휴거의 삶’ 을 사는 것입니다.

이는 ‘삼위일체를 위한 신부의 삶, 사랑의 삶’ 입니다.

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서
육계와 영계를 통틀어 최고로 빛나고 값이 나가는
<천국 황금성>을 주십니다.

<다른 의>를 가지고서는 ‘황금성’ 을 살 수 없습니다.
상상도 못 합니다.

오직 ‘휴거’ 되어 ‘휴거의 삶’ 을 사는 의,
곧 ‘삼위일체를 위한 신부의 삶, 사랑의 삶’ 을 사는 의로만
최고의 세계 ‘황금성’ 을 살 수 있습니다!

- ◆ <이 시대 최고의 의>를 행하니, 하나님은
천국 황금성같이 값이 있는
이 땅의 하나님의 궁 ‘월명동’ 을 주셨습니다.

<월명동>은 ‘지상에서 최고로 값이 나가는 터’ 입니다.
‘황금 같은 곳’ 입니다.

돌 보석으로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건축하도록
하나님께서 구상까지 해 주셨습니다.

공짜가 아닙니다. <의의 값>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저마다 의를 행하는데, 그 종류가 많습니다.

말씀 받기, 부흥집회와 성령집회,
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 건축 사역, 각 교회 성전 건축,
기도, 새벽기도, 찬양, 성삼위께 영광, 성삼위 사랑,
삼위와 일체, 주와 일체, 전도, 관리, 강의, 설교, 주 증거,
감사, 십일조, 환난·핍박·악평을 이기는 일,
말씀대로 행하는 일, 선을 행하는 일 등입니다.

이것은 ‘신앙의 삶’입니다.

그러나 이것이 자기에게 ‘그렇게도 큰 의’가 된다는 것을
꼭 알고 행해야 됩니다.

그러나 똑같이 의를 행해도

‘무엇’을 행하느냐, ‘어떻게’ 행하느냐에 따라서
각각 <의의 값>이 달라집니다.

- ◆ 죄를 안 짓는 것도 ‘의’입니다.

죄를 지으면, ‘의’를 도둑맞은 것과 같아서
‘의’가 상실됩니다.

- ◆ 또한 <자기 시간>을 성삼위를 위해 영적으로 많이 쓰면,
그만큼 ‘의의 값’이 크고 ‘의의 힘’도 큼니다.

왜요? <시간>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?

<시간>도 ‘돈’과 같습니다.

<자기 시간>을 누구에게 내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.

그 시간으로 공부도 하고, 일도 하고, 먹고, 놀고, 쉬면서
‘자기 삶’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

또한 세상에서도 시간을 쓰는 대로 돈을 벌니다.

그 귀한 시간을 ‘성삼위’를 위해 ‘영적’으로 많이 쓰니,
<의의 값>이 얼마나 크겠습니까?

◆ <육계>에서는 ‘돈’이 날개이지만,
<영계>에서는 ‘의’가 날개입니다.

◆ <육계>에서는 ‘명예’로 빛나지만,
<영계>에서는 ‘사명’으로 빛나고
‘의의 행위’로 빛납니다.

<자기 의>대로 ‘영’이 빛나고 변화되어 얻고 누립니다.
그에 따라 ‘육’도 누리게 됩니다.

◆ 세상에서 <육>이 아무 사명을 안 맡았어도
기도하고, 전도하고, 관리하고, 강의하고,
주와 일체 되고, 삼위를 사랑하는 등 ‘의’를 행하면
그 ‘의의 행위’대로 <영>이 빛나게 되고,
그 행위 자체로 ‘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’이 됩니다.

◆ 세상에서도 <하루의 시간>을 내주며 일하면 ‘일당’을 주고,
<한 달의 시간>을 내주며 일하면 ‘그에 해당되는 월급’을 줍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도 그러합니다.

성삼위가 원하시는 일, 하늘을 위한 영적인 일을 하는 만큼

<의의 값>을 주십니다.

<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값>은

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.

- ◆ 선생이 일주일 동안
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많이 하고,
잠언도 더 많이 쓰고, 시도 많이 쓰고,
행정도 더 많이 보면서 생명들을 관리했습니다.

그랬더니 꿈에 내 가방에 2000만 원이 채워져 있었습니다.

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했더니

하나님은 ‘그 정도의 의의 값’을 주신 것입니다.

- ◆ 영적으로 살수록 값을 크게 주셨고,
전도하고 관리하여 생명을 살릴 때,
말씀을 전하며 성령을 일으켜 깨닫게 해 줄 때,
하나님께 필요한 일을 할 때 상당한 값을 주셨습니다.

- ◆ 그러나 **죄를 지으면**, <의의 가방>을 도둑맞은 격이 됩니다.

회개하면, 하나님은 다시 <의의 대가>를 주시고
<의를 행할 수 있는 축복>을 베풀어 주십니다.

- ◆ 의를 행하며 자기를 의롭게 개발하면 <의의 값>이 커집니다.
마치 땅을 개발하면 땅이 비싸지게 되는 격입니다.

- ◆ 하나님은 <의의 값>대로 주십니다.

영계나 혼계에 가 보면,
자기 육이 의를 행한 대로 ‘옷’ 을 입고 있고,
그에 해당되는 ‘집’ 이나 ‘방’ 에 살고 있습니다.

옷, 집, 방이 <자기 의의 값>입니다.

- ◆ <꿈>에 자기 혼을 통해서 ‘자기 의의 값’ 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.

혼이 시장에 다니면서 ‘돈’ 을 주고
먹을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합니다.

자기에게 돈이 몇만 원 있기도 하고,
수십만 원, 혹은 수백만 원, 혹은 수천만 원,
혹은 수억 원이 있기도 합니다.

<자기 의의 값>을 ‘돈’ 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.

- ◆ <자기 시간>을 ‘하늘을 위한 영적인 것’ 에 많이 투자했으면,
그 <시간>을 ‘돈’ 으로 계산해서 보여 주기도 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똑같이 ‘의’ 를 행해도 <무엇>을 행했느냐에 따라서
<의의 값>이 달라진다고 했지요?

각 분야대로, 행위대로 ‘의의 값’ 을 쳐서 계산해 주십시오.

환난 때 승리하면, 의의 값이 큼니다.

핍박과 악평을 이기고 승리하면, 의의 값이 큼니다.

부흥집회와 성령집회를 하는 자,

게시를 받는 자, 집회에 다니는 자,
각 분야대로 <의의 값>을 쳐 주십니다.

- ◆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,
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말했습니다.

성경 본문 말씀은 간단요, 핵심은 이것입니다.

“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. 상당한 값을 주겠다.

<시간>에 따라서 값을 쳐 주기보다,
<일한 것>에 따라서 값을 쳐 주겠다.

그러니 힘이 있는 대로 일해 달라.” 했습니다.

이 말씀과 같이
하나님은 ‘이 시대에 해당되는 일’을 한 대로
<의의 값>을 쳐 주시고 <의의 대가>를 주십니다.

- ◆ 그래서 ‘이제 온 신입생’ 인데, 벌써 휴거된 사람도 있습니다.

자기가 늦게 왔다는 것을 알고,
그만큼 전심으로 열심히 행한 것입니다.

역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‘의의 값’을 주십니다.

- ◆ <주>는 ‘자기 의’를 지불하여
‘시대의 죄’도 용서하고,
‘사람들의 죄’도 용서하고 구원했습니다.

<돈>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듯이,

<의>가 많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령과 성자와 함께 행합니다.

- ◆ <의>가 부도나면 파산하기도 합니다.

그러면 그 ‘육과 영’은 사망에 뺏기게 됩니다.

자기 육과 영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

이때 <의 있는 자>가 대신 지불해 줘야

그 ‘육과 영’을 사망에 뺏기지 않습니다.

그래서 <주>가 ‘시대 죄와 사람들의 죄’를 대신해

십자가를 져 주고 구원하는 것입니다.

- ◆ 세상에서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

빛이 썹이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.

누가 그 가게를 사 주지 않으면, 뺏기게 됩니다.

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데

누가 사 주면 가게를 뺏기지 않고 다시 운영하게 됩니다.

- ◆ 신앙 세계도 그러합니다.

<의의 부도>가 난 자들은 ‘의의 힘’이 없어서

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.

<주>는 ‘이들을 대신해서 지불할 의’가 있습니다.

고로 <주>는 그들을 위해 대신 ‘의’를 지불해 주고,

용서해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 줍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며 조금하계만 생각하지 말아요.
휴거도 그러합니다.
빨리 700선이 돼야 한다고 조금하계 생각하면 오히려 못 합니다.

<마음과 생각의 허리>를 꼭 펴고
<생각>을 빨리 회전시키면서
조금 더 부지런하고, 조금 더 노력하고,
조금 더 열심히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.

그러면서 전심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.

그래야 ‘의의 돈’ 을 많이 벌게 됩니다.
그래야 ‘의의 값’ 이 크게 됩니다.

- ◆ 세상에서도 ‘돈 벌기’ 힘들지요?
하나님 안에서도 ‘의 쌓기’ 어렵습니다.
왜요?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며 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행한 만큼
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반드시 ‘의의 돈’ 이 되어 쌓입니다.
그것을 자기가 영원히 쓰면서 누리게 됩니다.

- ◆ 수많은 의 중에서도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한 의가 가장 크고,
생명을 구원하여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게 한 의가 가장 큼니다.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내가 감동되는 대로 ‘의의 값’을 쳐 주겠다.” 하셨습니다.

고로 <의의 값>을 많이 받으려면, 성령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.

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감동시킬까요?

성령을 실체로 모시며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.

심정 상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의 마음을 맞춰 드려야 됩니다.

말 잘 듣고 늘 성령과 함께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.

그리고 성령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니

매일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.

그러면 성령님의 마음이 감동되어

<의의 값>을 많이 쳐 주시고,

성령님의 지갑에서 <의의 돈>을 많이 빼서 주십니다.

- ◆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<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값>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.

그래서 조금만 더 행하면 운명이 뒤바뀌고,

조금만 더 행하면 문제가 답으로 뒤바뀌고,

조금만 더 행하면 딴 세상으로 뒤바뀌고,

조금만 더 행하면 육도 영도 엄청나게 받고 누리게 되고,

조금만 더 행하면 황금성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.

조금만 더 ‘의’를 행하여

그 <의의 값>으로 운명을 뒤바꾸고,

의를 행함으로 <의의 힘>을 얻어 차원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?

<하고자 하는 생각의 축복>이 충만하고,

행할 때에 <삼위의 능력>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!